

김윤진 연구원

## 요약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Cost-of-living crisis(이하, '생계비 위기')가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생계비 위기의 심화는 영국 내 보험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국 보험당국과 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산업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함. 이에 일부 보험회사는 장기적 측면에서 보험소비자의 재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급격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Cost-of-living crisis(이하, '생계비 위기')가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심화되고 있음
  - 2022년 9월 영국 물가상승률은 10.1%로 G7 국가 중 독일(10.9%) 다음으로 높았으며,<sup>1)</sup>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상승하여 4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sup>2)</sup>
    -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에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상승압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소비재·에너지·식품 가격 급격히 오른 것이 주요하게 작용함
  -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가계(Households)의 실질소득<sup>3)</sup>이 급감하고, 그 결과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른바 '생계비 위기'가 2021년 말 시작되어 최근 심화되고 있음<sup>4)</sup>
    - Bristol 대학교가 분석한 가계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체 응답자의 36%가 생계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계비 위기는 영국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식품, 연료와 같은 필수재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임
- 생계비 위기의 심화는 영국 내 보험소비자의 보험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금가입자의 노후 소득 가치 하락 및 보험사기 발생률 증가 등 보험산업 내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1) 영국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원인에는 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위험이 확대 ②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심화 ③ 브렉시트 이후 세금부담 확대와 노동인구 유출로 인한 임금 비용 상승 등이 있음  
 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2. 10), "Consumer price inflation, UK: October 2022"  
 3)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소득으로,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됨  
 4) abrdn Financial Fairness Trust(2022. 7), "UNDER PRESSURE: THE FINANCIAL WELLBEING OF UK HOUSEHOLDS IN JUNE 2022, Findings from the 6th Coronavirus Financial Impact Tracker Survey"; IMF(2022. 10), "Countering cost of living crisis"

- 생계비 위기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답자의 27%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 상품을 해지하거나 보험가입을 갱신하지 않았음<sup>5)</sup>
  - 근로기에 있는 가계 중 퇴직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지(Opt out)하거나 기여율을 축소한 비중은 9%였으나 응답자가 각 이코노미 종사자, 프리랜서인 경우 비중이 각각 21%, 12%까지 상승하였고, 은퇴기에 있는 연금수령자는 물가 상승으로 필수 소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노후 소득의 보장 공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sup>6)</sup>
  - 한편, 영국에서 생계비 위기가 시작된 이후 손해보험에서 사기성 보험금 청구가 전년도 같은 기간(1~5월)에 비해 25% 이상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sup>7)</sup>
- 보험(연금)가입자는 보험 해지, 보장(기여율) 축소, 중도 인출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생계비 위기 압박을 완화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 측면에서 향후 보험(연금)을 통한 안전망(노후 소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장의 부재로 더 큰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sup>8)</sup>
- 특히 보험료는 ‘Poverty premium’(통상 필수재라고 여겨지는 동일 상품 및 서비스들에 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현상) 상승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소비자가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sup>9)</sup>
- 영국 보험당국과 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보험회사는 장기적 측면에서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영국 보험협회(ABI)는 현 위기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 소득보장보험 등에 대해 납입연기(Payment holidays)와 같은 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sup>10)</sup>
  - 영국 보험감독국(FCA)은 올해 9월 보험회사 CEO들에게 보험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상품 및 특약 가입, 불공정한 패널티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불합리한 관행이 발견될 경우 보험감독국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음을 언급함<sup>11)</sup>
    - 특히, FCA는 보험사가 위험과 손실에 취약한 고객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함
  -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은 생계비 위기로 보험 유지 또는 보장축소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장기적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고객들이 보험 해지 없이 3개월간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5) abrdn Financial Fairness Trust(2022. 7)

6) abrdn Financial Fairness Trust(2022. 7); The Actuary(2022. 8), “Cost-of-living crisis could slash pensions by quarter”; BBC(2022. 10), “Cost of living: The people trying to make ends meet as costs spiral”

7) Zurich UK(2022. 7), “Cost of living crisis fuels 25% rise in insurance fraud”

8)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2022. 6), “Cost of living crisis changing how we manage money”; FT(2022. 8), “Workers halt pension savings as cost of living crisis bites: Warning over long-term damage to retirement funds”

9) FT(2022. 7), “Cost of living crisis could force consumers to cut back on insurance, FCA warns”

10) ABI(<https://www.abi.org.uk/products-and-issues/topics-and-issues/cost-of-living-crisis/>)

11) Reuters(2022. 9), “UK Watchdog tells insurers to help customers in cost of living crisis”